

이차전지 '테마주 광풍'에... 광주·전남 주식시장 과열

7월 증시 동향...거래대금 13조4242억원으로 한달새 70.6% ↑ 3~4배 수익 경험담에 솔깃...코스피 매수 75%·코스닥 65% 늘어

이차전지와 초전도체 등 테마주 '광풍'이 국내 증시를 휩쓸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지역민이 급증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관련주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돌아, 생전 주식과 담을 쌓고 살던 이들이 투자에 나서는 등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합산)은 13조4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70.6%(5조557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 금융권과 증권가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스피 매수 거래대금은 3조5530억원으로 전월(1조5170억원) 보다 74.51%나 급증했다. 매도 거래대금도 2조380억원에서 3조5425억원으로 73.82% 늘었다.

코스닥 매수 거래대금은 1조9139억원에서 3조1556억원으로 64.88%(1조2417억원) 늘었고, 매도 역시 1조8788억원에서 3조1729억원으로

68.8%(1조2941억원) 증가했다.

지역 내 주식 열풍에 초보 투자자를 일컫는 '주린이'(주식+어린이)들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태어나서 처음 주식계좌를 만들었다는 광주의 가정주부 박모(여·47)씨도 이 기간 주식 열풍에 합류한 투자자다.

박씨가 투자한 종목은 이차전지 관련주였다. 박씨는 지난 6월 1일 계좌를 개설하고 이차전지 관련 테마주인 '에코프로'를 1주당 31만원에 15주를 매수했다. 해당 주식은 한 달 만에 4배 수준인 1주당 120만원까지 올랐다.

박씨는 "주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주위에 주식으로 돈을 잃은 이들이 많아 투자를 주저했던 게 사

실"이라며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이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해 단기간 3~4배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이 많아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판 주식 역시 이차전지 관련 테마주였다.

코스닥에선 지역민들이 '에코프로'를 5609억원 사들이고, 5845억원 팔아치웠다. 이어 형제주인 '에코프로비엠'을 3065억원 매수, 3124억원 매도하는 등 두 번째로 많이 거래한 종목이었다.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금양',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이차전지 테마주가 나란히 1위에서 4위를 휩쓸었다. 'POSCO홀딩스' 등 상위 4개 종목은 전체 매수금액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많은 '선

택'을 받은 종목이었다.

이차전지 관련 테마주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데 이어 최근에는 '초전도체'가 주식시장의 판세를 뒤집었다. 이처럼 '급등주'와 '테마주' 등 각종 소문과 함께 높은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식시장을 향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시장대응이 빠른편이라 7월 거래대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전도체'와 '중국 단체 입학'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어 이달에도 투자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갑 다시 닫히나... 전국 9곳 소매판매 감소

광주 전년비 4.6%·전남 4.9% ↓...슈퍼·잡화·편의점 부진

올해 2분기 광주·전남의 서비스업생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보복소비에 대한 기저효과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지역 소매판매는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광주 서비스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부동산(28.1%)과 금융·보험(7.2%)이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숙박·음식점(-8.7%)과 교육(-

4.9%), 도소매(-3.3%) 등이 감소했다.

전남의 서비스업생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부동산(9.7%)과 금융·보험(6.0%)이 증가했고, 숙박·음식점(-7.1%), 정보통신(-5.0%)은 감소했다.

올 2분기 소매판매를 보면 광주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전남은 4.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승용차·연료소매점(4.5%)에서 판매가 증가했으나, 전문소매점(-8.7%)과 백화점(-

8.3%), 슈퍼·잡화·편의점(-6.1%)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 역시 승용차·연료소매점(6.7%)에서의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전문소매점(-11.1%)과 슈퍼·잡화·편의점(-4.4%)에서의 판매가 감소한 게 전반적인 하락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는데, 제주(-7.4%)와 대구(-5.0%)에 이어 전남과 광주의 하락세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 아이디어 공모' 시상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미성년 특화 서비스 제안' 대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9일 브랜드 파워 6년 연속 1위를 기념해 실시한 '고객과 상상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시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이벤트를 개최했다.

공모 주제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광주은행 상품·서비스·제도 관련 불편사항이었으며, 지난 6월 한 달간 광주

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을 통해 제출받았다.

심사를 통해 부상으로 ▲대상(1명) 광주상생카드 50만원 ▲우수상(2명) 광주상생카드 30만원 ▲장려상(50명)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 ▲참여상(선착순 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 등을 증정했다.

대상작인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미성년 특화 서비스 제안'은 미성년 자녀들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였으며, 광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윈스톱 금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중앙회, 아동복지시설에 1400만원 스포츠용품

광주·전남 44개소에 축구공 등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회장 임경준)는 10일 광주시 광산구 글로벌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이 사용할 14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장과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회장, 이사장, 김형준 광주전남기공협회장, 이사장,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손이수 글로벌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포츠용품 지원은 지난 '2023년 중소기업인대회' 표상 수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후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건강 한 야외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후원한 스포츠용품은 미니축구공대와 축구공, 농구공 등 센터 아동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9개 품목으로 구성했으며, 글로벌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아동복지센터 44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경준 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자들이 소의 계층을 위해 자발적 나눔을 함께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랑나눔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반기 벤처투자액 1년새 42% '뚝'

정보통신기술 61% 최다 감소...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4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8776억원으로 61.0% 줄었고, 바이오·의료는 5961억원으로 54.7% 감소했다. 또 유통·서비스가 4104억원으로 63.0%, 게임이 719억원으로 58.4% 각각 줄었다.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

기보다는 25% 늘었고,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증가했다.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이례적으로 실적이 급증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9과 2020년 상반기 수준은 상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5년간의 벤처투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 이장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전체 투자 금액도 장기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지난 5년간 벤처투자 실적도 병행 분석했는데, 코로나 이후 2021년과 2022년도에 공통으로 투자액이 급증했다"며 "해당 시점 전후로 국가별 벤처투자 실적이 서로 동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59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7.2% 줄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기보다는 35%, 2020년 상반기보다는 105% 각각 증가한 것이다.

중기부는 하반기 벤처투자 시장에 대해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연초보다는 나아지는 추세"라며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금융위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까지 함께 집계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상반기 업적평가 1위

27개 영업점 중 16곳 1~3등급...자산건전성 연체비율 0.05%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가 2023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10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광주본부는 지난해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

위를 달성했으며, 관내 27개 영업점 중 16개 사무소가 종합업적평가에서 1~3등급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종합업적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자산관리, 기업어신, 비이자사업, 건전성 등 9개 항목 평

가로 이뤄졌는데, 광주본부는 ▲지역중소기업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고향사랑으로 카드' 추진 등 각종 비이자사업 확대 ▲자산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 등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자산건정성 부문에서 연체비율 0.05%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박내춘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출금리 과도" 은행권 민원 68.4% 급증

중도금 금리 조정 요청 1652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5%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한 민원만 1652건이 접수됐다.

A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B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은행권 이외에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중소 서민(49.0%) 권역과 손해보험(0.4%) 권역도 민원이 증가세였다.

특히 신용카드사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5124건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거나, 해외여행에서 분실·도난당한 카드의 부당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연합뉴스

ESG 공시 의무 대응 방법에 대하여

광주경총, 오늘 금요일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11일 오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8월 첫 금요일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이 감사로 나서 '심장을 살리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심혈관질환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밖에 오는 18일에는 김광기 ESG경제 대표를 초청해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대응'을 주제로 강연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ESG 공시 의무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SG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8월 금요일조찬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1.56 (-3.56)
↑ 코스닥	911.29 (+2.31)
↑ 금리(국고채 3년)	3.687 (+0.015)
↑ 환율(USD)	1316.00 (+0.30)